

#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황당아이템들

과거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황당하고, 잔인하고, 고개를 찡겨 되는 경우가 많다.

### 1. 치통약으로 즐겨 쓴 코카인

19세기, 모르핀 중독 치료에 쓰이기 시작한 코카인은 탁월한 진통 작용에 힘입어 크게 주목 받았다. 얼마 안 가 만병통치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치통, 만성피로, 건초열 등에 두루 쓰이게 되었다.

### 2. 유아 배달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소포로 부치는 게 합법이었다. 아이 무게가 일반적인 소포 무게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우표를 붙여 우편으로 붙일 수 있었다. 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소포'로 배달한 것은 당시 우편 요금이 기차표 가격보다 훨씬 싼 것을 뿐 아니라, 집에까지 정확히 배달하는 우체부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3. 인간 동물원

인간 동물원에서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지에서 데려온 인간을 전시했다. 타인종을 미개인처럼 다룬 잔인한 기획 뒤에 백인 중심 사상이 짙게 깔려있었다. 위 사진은 1958년 벨기에에서 찍은 것이다.

### 4. 아기 우리

1930년대의 영국은 신선한 공기에 열광했다. 이에 따라 아기를 아파트 창문 밖 우리에 넣어두고 바깥바람을 쐬도록 했다.

### 5. 고인과 기념사진



사진술이 발달하고 1인당 소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특이한 기념 사진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고인과 함께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남기는 것. 이때 고인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연출해 최대한 '살아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게 관건이었다. 왼쪽 사진에서는 젊은 딸을 잃은 부모가 죽은 딸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6. 정원 장식용 난쟁이

18세기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괴이한 유행이 불기 시작했다. 드넓은 정원을 소유한 부잣집에서 '살아있는 정원 장식'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 고용된 남자들은 정원 한구석에 있는 별채에서 살며 마치 정원 난쟁이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주된 임무였다. 또한 수염이나 머리카락, 손톱을 자르는 게 허용되지 않았으며, 드루이드(제사나 의식의 지행을 담당하는 사제)나 난장이 복장을 하고 그에 맞는 포즈를 취해야 했다.

### 7. 무서운 의료 행위

무절제한 부항 사용이 용인되고 매독 치료에 치명적인 수은을 쓰는 게 일반적인 시대가 있었다. 18세기엔 담배 연기로 관장을 하기도 했다. 19세기의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 루이스 세이르(Lewis Sayre)는 환자를 고리에 매달고 휘어진 척추 교정을 시도했다. 당시 성행한 온갖

엽기적인 의료 행위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한 편이었다.

### 8. 방사성 장난감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몰랐던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잠재력에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다만, 이게 지나쳐 어린이 선물용 '미니 실험실'을 판매했다는 게 문제다. 제품 구성엔 진짜 플로늄과 우라늄이 소량 들어갔다!



### 9. 인체 부위별 수집가

인체 부위를 수집한다? 무엇보다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부병리학적'인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는 일이 부유층의 고상한 취미로 공공연히 인정받았다. 간혹 참전 군인들도 이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위는 제2차 세계 대전에 참가했던 참전 용사가 일본 군인의 두개골과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

### 10. 임신 중 흡연 처방

흡연의 부작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20세기 중반, 흡연은 더없이 우아하고 건전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이에 더해 임신부(임신부와 수유하는 산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흡연 처방이 유행하자, 담배 회사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했다. 그리고 곧바로 걸맞은 광고 제작에 나섰다.



# 럭키타이어

## 가을맞이 감사 대 세일

HANKOOK KINERGY ST H737 P195/65R 15 \$65.00 Each



브레이크 체크 업 Free  
얼라이먼트 체크 업 Free



NEW TIRES  
OIL CHANGE  
BRAKES

(714)530-2301

13128 Magnolia St. #A  
Garden Grove, CA 92844

